

# 제11회 한일미래포럼을 마치며

울산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권덕현

안녕하세요, 이번 제11회 한일미래포럼에 한일관광산업팀으로 참여했던 울산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권덕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번 포럼을 통해 배우고 느낀점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이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 <참가동기>

사실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수출규제를 비롯해서 한일 양국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 있기에, 이번 포럼은 오기 전에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일본여행 취소가 줄지어 일어나고 있는 중에 한국인으로서 내가 일본에 가는 것이 과연 맞는 행동일까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일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들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나가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포럼에 예정대로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일본어를 JLPT N3수준까지 작년부터 조금씩 공부하여 왔지만, 혼자 책으로만 공부했기에 일본인과 일본어로 직접 대화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포럼이 일본의 대학생들과 할 수 있는 만큼 일본어로 대화해보고, 일본인 친구도 많이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토론내용 - 한일관광산업팀>

이번 포럼에서는 크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 강제징용 노동자
2. 재일교포/조선인
3. 젠더/페미니즘
4. 한일관광산업

네 가지 주제 모두 관심이 있어서 주제를 정하기 힘들었지만, 이전에도 일본에 2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고 일본여행에 관심이 많았기에 4번 한일관광산업 주제를 1지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청 후에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한일관광산업도 악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서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포럼이 시작하기 전부터 서로 카카오톡을 통해 한일관광산업 팀 참가자들이 서로 자기소개를 나누고, 어떠한 주제에 대해 토론할지 얘기해보았습니다. 정한 주제에 대해서 포럼 전에 각자 조사를 해 오기로 했는데, 다들 준비를 너무 잘 해서 거의 준비하지 못한 제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토론의 처음 시작은 서로 조사해온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어떤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할지 얘기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사태의 원인이 되는 여러 사건들(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을 비롯해 한일 양국간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도자료들, 한일 양국간 관광산업 규모 및 정책 등의 비교 등 여러가지 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 가끔 토론이 과열되면 대화내용이 많아지고 말이 빨라져서 통역하시는 분이 많이 고생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공유한 정보를 토대로 원인을 파악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한일관광산업 및 한일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정부차원에서와 민간인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열기나 이로 인한 일본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일본에서는 비중있게 보도되고 있지 않으며, 현 사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 <PPT 발표, 일본 취재진의 보도>

셋째날 오후에는, 각 팀에서 토론한 내용을 PPT에 담아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일간의 포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첫째날 개회식 이후 저녁부터 셋째날 오전까지 토론을 마치고 PPT 작성 및 발표준비까지 끝나야 하기에 상당히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발표하는 날은 점심까지 굶으면서 열심히 PPT를 마저 만들었고, 무사히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저희팀 이외에 다른 팀의 발표 내용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특히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가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인들은 모두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강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고 알고있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본인들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역사교육의 차이에서 양쪽의 인식차이가 기인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사히신문의 기자님도 발표식에 참여하셔서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셨는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공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맞다는 것이 아사히 신문장의 입장이라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노동자 문제에 대해 한국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반면, 일본은 국가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도 있다는 서로의 인식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일간의 포럼 기간동안 도쿄방송(TBS)의 취재진 분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했던 토론 내용은 포럼이 끝난 다음날 악화된 한일관계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내용의 TBS 특집방송으로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 <포럼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포럼이라고 해서 딱딱한 토론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날 오전에는 다함께 이즈모타이샤로 필드트립을 떠나서, 저희팀 이외의 친구들과 함께 점심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룸메이트인 인서와 료마는 둘 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정말 잘 해서 3일동안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서로 어색했던 첫째날 요나고 공항에서 산레이크로 떠나는 버스안의 분위기도 잠시, 밤에는 서로 방에서 놀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벤트를 꼽으려면 당연히 '마니또게임'을 꼽고 싶습니다. 일본인-한국인이 랜덤으로 1:1로 짝지어져서, 서로의 마니또가 되어 들리지 않고 미션을 하고 선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캐릭터가 그려진 텀블러를 선물했는데, 선물을 받은 무카이야마 유리씨가 너무 기뻐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중에 보니 유리씨의 휴대폰 케이스도 라이언이 그려진 케이스였고, 정말 잘 골랐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 <참가하지 않았다면 정말 후회했을 3박4일의 포럼을 마치며>

길 줄만 알았던 4일이 금방 지나가고 나서, 저도 이 글을 쓰며 이번 포럼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일본의 모든 부분을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양국간에는 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갈등이 있어 왔으며, 그 속에서 계속 교류를 통해 서로 발전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 또한 있어왔습니다. 4일간의 포럼을 통해 현재의 한일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고, 이런 민간차원의 교류가 양국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협조적인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일동안 이 포럼이 무사히 진행되도록 힘써주신 무라타 사키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위원님들, 어려운 내용을 쉬지않고 계속 통역해주신 통역사분들, 그리고 열심히 포럼에 참가해 주신 우리 한일관광산업팀과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